

인디 중산층을 키우자

주용진 TBS 라디오제작본부 PD

히트곡 없이도 꾸준히...
월 수백만 원 버는 '인디 중산층' 뜬다 中



(동아일보, 2021.2.4. 임희운 기자)

광복 이후 지금까지 대중가수는 '국민 히트곡'이 없다면 단명하는 게 공식이었다. 한두 개의 히트곡이 있어야 이를 바탕으로 활동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제는 신작으로 꾸준히 수익을 내는 전업 음악가가 늘고 있다. 이른바 국내 음악계에 '인디 중산층'이 부상하고 있다. 인디 중산층이란 대개 디지털 음원 판매 수익으로 월 200만 원 이상을 버는 이들을 가리킨다. 저작권료까지 합치면 월 300만 원 이상,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벌어들이는 경우도 있다. 그간 가요계에선 보기 힘들었던, 음원 시장의 '알파 세대'다. 중산층이라는 명칭이 중견의 경력이나 중간 정도의 인지도를 가리키지는 않는다. 듀오 '나이트 오프', 그룹 '위아더나잇' 등 작지 않은 팬덤을 지닌 팀도 있지만 결, 이강승, 지미 브라운처럼 일반 대중은 물론이고 음악팬들에게조차 낯선 이도 다수다.

‘아메리카노’로 일약 스타에 오른 10CM(십센치)를 인디라 말할 수 있을까요? 10CM가 앞에서 언급된 이강승의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음원을 발표했다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인디가수를 만나러 가자

인디와 오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재에서, 밴드 중심의 인디밴드에서 일인 제작자의 방식으로 확장되는 음악씬에서, 음원사이트 TOP 100이나 누군가의 추천 플레이스트로 음악을 만나는 현실에서 인디가수가 설 자리는 어디일까요, 아이돌로 가득한 음악 순위 프로그램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요. 왼쪽의 기사처럼 꾸준히 음원으로 수익을 내는 가수는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단지 음악이 좋아서, 노래하고 싶어서, 음악으로 먹고살고 싶어서 홍대에서 라이브를 하며 자신을 알리는 가수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인디 중산층이 되지 못해 현실에서 우당탕하고 있죠. 많은 원석 중 나만의 빛을 내기 위해,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음악 활동을 하는 가수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카페 언플러그드

(www.instagram.com/cafeunplugg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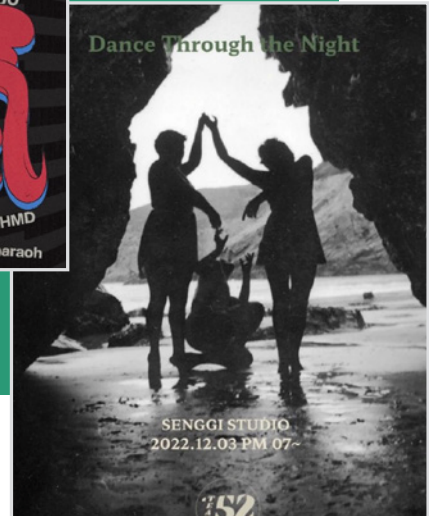
홍대 와우산 밑에 자리 잡고 있는 카페 겸 공연장입니다. 지하에 공연장이 있고 1층에는 카페와 펍이 같이 운영됩니다. 또한 가게 문을 열자마자 이 공간의 대표이사인 리트리버 언돌이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덩치는 크지만 순한 녀석이라 사람들은 바로 사진을 바로 찍곤 하는데요, 홍대에 있는 여러 라이브 공간이 존재하지만 이곳의 특징은 확실합니다. 어쿠스틱 위주의 라이브며, 오픈 마이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원석 상태의 아티스트와 만날 수 있습니다. 아직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을 기회가 적은 아티스트들에게 무대를 만들어 기회를 주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의 북북북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이해해 주시구요. 새로운 아티스트에 대한 도전이 조금 거리긴다면 오픈마이크 대신 기획공연을 추천합니다. 인지도를 얻고 나서도 이 공간에 의리를 지키는 아티스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공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팁을 드리자면 공연티켓으로 공연 끝난 후 1층 펍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공연 후에 맥주나 칵테일을 마시는 걸 추천합니다. 카페 또는 펍으로만 해도 이 공간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장소입니다.

생기스튜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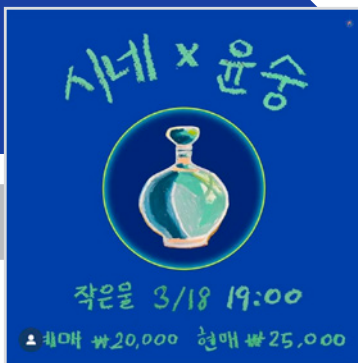
(www.senggistudio.com,

www.instagram.com/senggistuio)

이곳은 지상 5층에 있는 공연장입니다. 새로 생긴 라이브 스튜디오 중 가장 핫하게 올라온 곳입니다. 이곳은 다른 라이브 공간과 다르게 유튜브 스트리밍과 공연영상 제작에 높은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시각적으로 화려한 공연도 많구요. 그러다 보니 디자이너, 무용 등 다양한 장르와 콜라보 공연도 이루어집니다. 음향뿐만 아니라 영상 제작에도 힘을 쏟고 있어서요, 생기스튜디오 유튜브 채널은 해외에서 더 반응이 많습니다. 또한 이 공간을 만든 생기장(대표에게 이 표현을 씁니다)은 밤신사라는 밴드 출신으로 음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음악뿐만 아니라 부동산 컨설팅 관련 일을 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공연장 운영에 있어서 보통의 라이브 공연장과 다른 접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와 같은 외부 변수에도 유연히 대처하며 공간을 운영하셨습니다. 현재 홍대에서 가장 화려한 라이브클럽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Senggistuio



작은물

(www.instagram.com/zak_eun_mul)

라이브 공연장은 홍대에만 있는 게 아니겠죠. 을지로, 힙지로에 있는 공간 하나도 알려드립니다, 을지로 3가와 4가 사이에 위치한 작은물은 3층 카페와 4층 공연장으로 이루어진 공간입니다. 일반 공연장과 다른 점은 인쇄소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다 보니 공연장에 큰 창문이 있습니다. 공연 중 생활소음이 들어오는, 음악과 거리가 섞이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또한 창밖을 통해서 해가 지는 등 변화가는 하늘색과 함께 공연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3층 카페에서 원두도 판매하는 등 커피에 진심이기도 합니다.



Cafeveloso

벨로주 (www.instagram.com/cafeveloso)

홍대에서 15년 넘게 이어오는 베테랑 라이브 공간입니다. 인디 가수들에게 벨로주에서 공연을 한다는 건 본인이 가수로서 레벨 업 했다는 걸 보여주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디 가수는 벨로주에서 공연하기를 희망하죠. 이런 점에서 벨로주에서 공연하는 가수는 인디 가수 중 정예 멤버라 할 수 있고, 혹은 이름이 알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벨로주 사장님은 공연과 음악에 대해 진심이어서, 이곳에서 하는 공연 관람은 실패할 확률이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나만의 가수를 키워봅시다

홍대에는 여전히 많은 라이브 공간이 있습니다. 많은 아티스트들이 작은 공간에서 공연을 하며 이름을 알리려 하며 노래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매력을 표현하지 못해 안타까운 분도 있고, 싱어송라이터보다는 작곡이나 연주 세션에 더 어울리는 분도 계시지요. 하지만 다양한 가수를 보며, 그중에 괜찮은 가수를 만나 음악을 알아가며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하는 건 조금 뿌듯함을 줍니다. 제가 2018년에 공연장에서 만난 가수는 2021년 한국대중음악상 3관왕에, 2021년에 만난 가수는 2023년에 한국대중음악상 2관왕에 올랐습니다. 또한 <싱어게인> 등 여러 오디션 프로에 나와 심사위원과 시청자의 눈에 띄기도 합니다. 뜨기 전 아티스트를 알아보는 기분은 묘한 것 같습니다. ‘이 가수 좋다’, ‘똥 것 같다’, 하고 있

다가 몇 년이 지난 순간 뉴스와 방송에서 만나면 반가움이 먼저, 드디어 성공을 향해 가는구나 하는 안도감과 나만의 뿌듯함도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물론 앞으로 공연 티켓팅의 난이도가 높아지는 걸 경험하면 조금의 열도 나지만요. 그렇지만 나만의 아티스트였다 모두의 아티스트가 되는 걸 축하해야겠죠. 음악을 즐기는 여러 방법 중 하나가 나만의 가수를 키우기라 생각합니다. 라이브 공연장 방문은 날갯짓하려는 가수들에게 작은 응원과 격려를 하는 길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